

## 한치진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사상계의 기독교윤리 이해\*

이장형 (백석대학교 교수)

### I. 연구의 목적

### II. 『증보윤리학 개론』 및 『현대사회문제』 해제 및 분석

1. 『증보 윤리학개론』 해제 및 분석
2. 『증보 윤리학개론』 개념어 및 분석
3. 『현대사회문제』 해제 및 분석

### III. ‘신학세계’에 나타난 기독교윤리 이해와 인물지 논의

1. ‘신학세계’에 나타난 기독교윤리 이해
2. 한치진의 서지 정보와 인물지 재논의 필요성

### IV. 결 론(한치진 연구의 의의 및 성과)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27-A00192)

---

• ABSTRACT •

---

## A Understanding of Christian Ethics through Dr. Han, Chi-jin in Korea

Lee, Jang-Hyung

There are some important points in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hristian Ethics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an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 understanding of Christian Ethics found in the works of Dr. Han, Chi-jin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aspects; 1) creative interpretation of ethics 2) realistic social ethical interpretation of ethics 3) active reception through experiences in a foreign country. Dr. Han was not an ordained pastor but a theologian and philosopher of ethics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nd according to an Christian interpretation in the field of sociology, psychology and religious studies. His representative book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was published in 1934.

**Key words:** Han, Chi-jin, Christian Ethics, Social thought, nation,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

## I. 연구의 목적

한국의 기독교 사상 및 신학 체계에 있어서 기독교윤리학의 자리매김은 언제부터 정교화 되었을까? 기독교윤리학은 학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사상 및 신학적인 논변에 있어서 지나치게 서구 신학 및 특정 현대 윤리학자들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이런 연유로 기독교윤리학은 그 윤리학적 내용과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적인 기독교 윤리사상의 시원은 어디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서세동점과 일본의 아시아주의 또는 동양주의의 흐름이 뒤덮고 있던 한국의 근대사회에서 기독교윤리학의 수용과 이해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 추적하는 작업은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이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넓게 본다면 한국 기독교의 선교 초기부터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철학 및 사상사 속에서 기독교윤리학의 유입과 이해 및 그 수용 양상을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의 하나로 시도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단순히 전통적인 사상과는 다른 기독교의 유입 뿐 아니라, 서구의 문화와 근대 사상이 함께 유입되었다는 데에 그 중요성과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런 서구 사상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교회 및 지식인들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역사학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는 서구 사상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상당한 결과물도 나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서구 사상과 기독교의 접맥을 찾아본 연구들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신학의 한 분야이면서도 일반 사상 및 철학과 상당한 공유 부분을 갖고 있는 기독교윤리학 이론의 수립 체계와 정교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sup>1)</sup>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근대 사회의 서양사상 및 문화 수용사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윤리의 수용과 이해 양상을 살펴보는 데 주목한다. 기독교윤리학의 주제는 그 특성상 철학적 성격과 종교적 성격이 혼재된 자료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2)</sup> 당시의 기독교윤리 이론 및 사상 체계가 한국에 수용 또는 유입되는 과정을 연구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은 한층 심각하게 다가온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기독교윤리학의 수용과 이해 양상을 일제 강점기를 살아낸 사상가인 한치진(1901.9.29 -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초기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신념 체계적인 윤리를 그의 학문적 업적을 통해 추적하고자 한다.

물론 많은 학자들 중에서 왜 한치진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또한 최근 서양 사상의 수용 과정과 역사에 대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도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독교윤리학의 수용 및 연구사에 대한 연구를 만나기는 어려우며, 특히 제1세대 철학자이며 기독교 신앙인인 한치진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sup>4)</sup> 즉

1) 강영안교수의 “1930년대 저술에 나타난 철학 용어- 한치진의 경우”(강영안 저,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궁리, pp.177-199)는 한국철학사에서의 한치진의 위상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연구이며, 이광래교수는 일제강점기 동안 단행본으로 출판된 철학 저작물은 한치진의 『철학개론』, 『인생과 우주』, 김두헌의 『윤리학개론』(일본어 출간), 안호상의 『철학강론』<sup>5)</sup>뿐임을 지적하면서, 한치진 사상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광래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사』(열린책들) p.295.

2)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진은 종교와 철학의 관계를 여러 차원에서 논의 한 바 있다.  
3) 한치진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는 세 차례에 걸쳐 문헌지 관련 연구를 게재한 공주사범대학교 하동호교수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였다. 하동호교수는 1975년 공주대학교 논문집 12권에서 “한치진연구문헌지1-1945.8.15. 이전 분”, 1980년 공주대학교논문집 18권에서 “한치진연구문헌지2-1945.8.15. 이후 분”, 1990년 한국고서연구회 발행, 고서연구7집을 통하여 “한치진연구문헌지3”을 발표하였다. 문헌지3은 문헌지2의 일부 내용을 정정하면서 한치진 박사에 관한 인물을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그의 후손들에 의해 조직된 한치진 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hahnc.com)가 개설되어 도움을 주고 있다. 필자는 한치진 박사의 장녀 한 영 선생과 연구 관련 이메일을 교환하였으며, 친절한 답신에 감사를 표한다.

한국의 서양 사상 수용에 큰 기여를 한 공통점이 있지만, 한치진은 안호상과 김두헌에 비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보니 철학계를 통한 논의 및 확산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치진의 한국 전쟁 중 피랍은 이후의 연구와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 물리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치진 자신에 의한 연구는 물론 그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제한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철학계와 신학계 양쪽으로부터 배제된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서양사상 수용사의 차원에서 기독교윤리를 다루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텍스트 읽기 등을 통한 보다 본격적인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윤리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적 방법론에 기초한 고전적인 방법을 통해 철학 교육을 받은 첫 세대가 이해한 기독교윤리학 또는 철학적 윤리학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은 서구 사상 수용사의 측면에서나 한국 기독교윤리학을 이해하고 그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며, 필자는 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저작의 규모<sup>5)</sup>나 실제적인 영향력 등을 통해 한치진이라는 확산을 갖게 되었다. 물론 상당히 정교화된 신학적 체계를 이룬 현재의 관점에서 한치진의 윤리와 사상을 보게 되면 번역과 소개 차원에 머물렀다는 피상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제 강점기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신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정립과 정교화 과정에서 배제할 수 없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기간이다.

4) 이런 상황 속에서 이진구교수의 “한국 근대 개신교 지식인의 종교인식” 연구는 한치진의 생애와 주요 저서 중 하나인 ‘종교철학대계’를 분석하고 있는 소중한 연구이다. (서울대 종교문화연구소 편, 『종교와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pp. 271-292)

5) 한치진의 저작 중 주요 도서 목록은 참고문헌에 별도로 제시되었다.

## II. 『증보 윤리학개론』 및 『현대사회문제』 해제 및 분석

한치진의 연구 및 저작 분야가 방대하나, 현재적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학문적 독창성과 치밀성 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태도는 인문학적 연구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당시 상황에서 보면 새로운 학문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만도 큰 기여를 한 것이며, 특히 소개 자료의 범위와 해석의 편협성 등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답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한치진의 사상에 있어서 기독교 및 그 기독교윤리 이해를 중점적으로 탐색,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물론, 그의 사상은 독창성 보다는 서구의 사상을 소개하는데 편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저서 『종교개혁사요(宗教改革史要)』<sup>6)</sup>의 서론은 남가주대 역사학 교수인 킬리랜드(Clarence V. Gilliland) 박사의 서술(1933년8월)로 되어 있는데 그가 추천의 의미로 보내온 것으로 보이며, 저작 전체를 그 편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서언에서(1면) “본서는 조선감리교신학교에서 종교개혁사란 학과를 교수하는 가운데 저작된 것이다. 조선어로 된 참고서가 없으니 외국인의 저서를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중에 린시(Lindsey)와 피셔(Fisher)의 개혁사와 로빈슨과 마이어스의 세계사를 많이 의존하였다. 문제가 역사이니 만큼 본서의 자료에 있어서 저자의 간혹비판(間或批判)<sup>7)</sup>이외에는 이상 제 선진에게서 취하였다”<sup>8)</sup>고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치진의 사상을 돌아보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으로 한치진의 기독교 및 종교에 관한 문헌들과 윤리학, 기독교윤리학에

6) 1933.9 발행, 4×6판 211면, 이화여자전문학교 내 철학연구소 발행.

7) 간혹비판은 서양서적을 번역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중간 중간 편역자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 주)

8) 한치진, 『종교개혁사요』, 서언 p. 1.

대해 언급한 문헌들을 분석함으로써 근대 한국 사회에 수용된 기독교인들의 윤리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사 부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이나 초기 수용사 부분을 간과하면 기독교윤리학의 한국적 발전은 항상 초보단계적인 논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치진의 주요 저서인 『증보 윤리학개론』과 『현대사회문제』에 대한 해제 및 특이성은 다음과 같다.

## 1. 『증보 윤리학개론』 해제 및 분석

### 1) 서지 사항

이화여자전문학교 내 철학연구사 발행

1934년 9월 발행, 미국 남가주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발행됨을 표기<sup>9)</sup>

『증보 윤리학개론』은 1934년 초판이 출간되었다. ‘증보’는 『윤리학개론』에 이은 증보판이란 의미가 아니라 제14장까지의 전개 후 후반에 ‘증보 윤리학과 실생활’이란 편성으로 15가지 주제의 에세이<sup>10)</sup>를 담고 있는 책의 성격상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책은 남캘리포니아 대학(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허버트 윌든카 펀드(The Herbert Wildon Carr Publication Fund)의 출판지원으로 출간되었음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한글 제목 표기나 서언 등에서 감사의 표기를 찾아볼 수는 없다.

9) 1936년 발간된 그의 저서 『최신철학개론』을 한국인에 의해 저술된 최초의 서양철학에 관한 단행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의 의견으로는 윤리학이 서양 철학의 주요 분야인 면을 고려할 때 이 책을 최초의 서양 철학 단행본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희영, 진교훈 교수의 관련 연구는 이와 관련한 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0)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비판 2. 인류발달의 문제 3. 최고정신 문명론 4. 세계평화론 5. 소수인의 진리 6. 영웅론 7. 이상과 실제 8. 자아개혁론 9. 인격수량론 10. 지도자론 11. 자유와 책임문제 12. 가정생활론 13. 도덕과 종교 14. 현대종교와 사회생활

## 2) 내용 분석

(1) 책이 사용되던 일제강점기는 군국주의(국가주의), 파시즘 등이 팽배한 때이므로, 윤리조차도 보편타당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에 물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윤리는 세계의 윤리가 아니라 각 국가의 윤리요, 각 개인의 윤리가 있을 뿐이다”<sup>11)</sup>라고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관점은 더 나아가 “누가 옳은 것이냐? 제 각각 자기의 주장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살 것 뿐이다”라는 대목에서 보듯 다소 주관적·회의주의자의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은 ‘장래의 이상으로 산다’며 인생을 사냥질에 비유하고 있는 서술 등을 보면, 질곡 많은 삶 속에 서로 ‘윤리적 이상’을 규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2) 특히 제2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계윤리사상의 발달 부분에서는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면서 결국 기독교윤리적 시각으로 귀결되는 그의 윤리 이해를 볼 수 있다. 그는 ① 고대 동양윤리사상, ② 고대 희랍윤리사상 ③ 기독교윤리사상, ④ 현대윤리사상, ⑤ 도덕문제와 그 학파를 차례대로 논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독교윤리사상 부분은 우선 히브리 윤리사상을 논하는데 유태교의 근본원리는 구약성경이며 신의와 계시에 의존하며, 신이 율법을 계시하는 방식이 ‘언약’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히브리적 윤리가 피상적 형식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점이다.<sup>12)</sup> 즉 외면으로는 세밀한 율법 복종에 몰두하고 내심의 회개와

---

11) 한치진, 『증보윤리학개론』, p.1.

12) 『증보윤리학개론』 p.27. 한치진은 히브리인들의 도덕종교관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신을 절대권위로 알고 거기에 귀의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이리하여 도덕의 근거는 개인의 시비곡직과 희로애락을 떠나 초자연적 장소에 있어서 엄연하였다. 비록 이와



경건을 등한시하는 위험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구별되는 기독교윤리사상은 무엇인가? 그는 기독교는 유대교가 세계화된 종교임을 설명하고 있다.<sup>13)</sup> 유대교의 사상과 신학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뛰어 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 종교개혁임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기독교윤리사상 구성에 있어서 종교개혁사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3) 한치진은 구약의 종교와 신약의 종교를 잘 대비시키고 있고, 구약이 복종의 원리(신에 대한 절대복종)라면 이제 기독교는 복종이 아닌 사랑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사람은 신에게서 나왔기에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은 신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예수는 사람을 신의 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절대복종을 반대하였다. 신과 그 자의 관계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람은 신에게서 나온 것이니만큼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은 신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sup>14)</sup>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하다. 한치진은 기독교 체계 안에서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을 실현하는 힘은 이치나 정욕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연관시키는 ‘신앙’이라고 보고 있다.

(4) 한치진의 저작 시기가 일제강점기임을 고려한다면, 그가 한국 기독교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세계 폭력과 관련된 논제를 다루면서 그는 조선이 서방의 폭력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선도 서

---

같은 도덕론은 엄정한 의미로는 장점이 많으나 결국 피상적 형식주의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13) 한치진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차이와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가는 ‘종교개혁’의 차이를 강조하는 구성을 보이며, 이런 전통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14) 한치진, 『증보 윤리학개론』, p.30.

양의 폭력주의로 인하여 단체생활을 표준하였던 그 구 도덕을 잃고 아비한 개인주의의 도덕이 되었다. 지방열(地方熱)과 파쟁은 이조이후 역시 조선의 고유물이지만 서양의 강자주의가 들어오자부터 그것들이 더욱 기세를 얻어 조선의 혈맥을 말르게 한다. 잘되는 사람이 있으면 깎아내리고 강자에게 아침하야 자기의 세력을 견고케 하려는 악습과 이간 등은 폭력주의의 소극적 퇴폐적 활약이다. 남을 죽이고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것은 이기적 폭력주의다. 타국을 멸하고라도 자국을 잘되게 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폭력주의다.”<sup>15)</sup> 특히 이 책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8년 9월 개정판으로 발행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제13장과 제14장은 제외하고 있다. 물론 저자 한치진은 “간단한 교과서용으로 제공하려는 까닭”이라고 제외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sup>16)</sup> 일제 강점기 상황 속에서 국가적 폭력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학문적인 용기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일제에 의해 계속 감시당하는 인물이었음을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의조선인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944년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상륙할 것이란 시국담을 논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기록이 있다.<sup>17)</sup>

(5) 증보 부분 ‘윤리학과 실생활’부분에서 기독교윤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관심과 지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증보 부분 ‘제13 도덕과 종교’에서는 도덕과 종교의 관계에 대하여 세세히 논의하고 있다. 그는 도덕과 종교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관계되어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 후 양자가

15) 위의 책, p. 208.

16) 한치진, 『개정 윤리학개론(재판)』, (서울: 조선문화연구사) p.1.

17)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공훈록’ 제7권 국내독립운동 편에 기록되어 있으며, 뒤늦게 2007년 8월15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발달함에 따라 상호관계 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① 역사상으로 고찰해보면 도덕과 종교는 어떠한 인간사회에든지 흔히 병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자가 공존하면서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였다.
- ② 도덕과 종교가 상호관계 되며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였으나, 양자가 본질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는 무신론자라도 생활에 있어서 종교 신자 보다 신성한 도덕생활을 하는 실례가 있다.
- ③ 도덕과 종교는 각각 그 한계가 있어서 자유로 발달할 수 있다. 종교는 인격적 신과 부자의 관계를 맺는 귀의신도의 태도요 생활이며 도덕보다 그 범위가 크다. 윤리학은 종교의 문제인 죽음과 영생 등을 연구하는데 치중하여 연구가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
- ④ 도덕과 종교는 완전한 생활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 즉 어떠한 도덕문제든지 깊이 생각하면 종교문제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 신님은 도덕적 내용을 포함하는데 참된 것이다. 어떤 선을 취하려할 때 종교심이 연출하여 도덕심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정신생활의 전개에 있어서 도덕과 종교는 개인의식의 양 측면이다.
- ⑤ 도덕과 종교는 다같이 초월적 과정을 요구한다.
- ⑥ 종교는 인생의 도덕적 동기를 구체화하고 증대시켜서 위대한 인생관을 조장한다. 우리의 생명이 우주적 생명의 일부로 생각하는 되는데 이 지구는 천국의 기초가 되기는 좁아 보인다. 종교는 우리의 의무를 넓히는 것이다.<sup>18)</sup>

또한 ‘제14 현대종교와 사회생활’에서 그는 조선의 종교인이 조선사회에 기초한 인식을 지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조선의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인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선의 종교가 조선인의 고유한 내적 정신의 표현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18) 한치진, 앞의 책, pp.70-72.

심정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자기중심적이다. 사회를 위하되 자기를 위함이었고, 사회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고로 자기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사회를 박차고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 많았다. 교회 내에 직무가 있는 이도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 교회를 박찰 수도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일을 구경하는 이들도 개인중심의 신자인지라 관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과거의 교인생활은 비사회적이었다. 즉 종교가 과거사회 특히 조선사회에 끼친 공헌이 미미한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조선 교회가 무슨 공헌이 있었다면 그것은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파동적으로 공헌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고로 과거의 교회 내에 업적은 서양적 색채를 벗어난 것이 별로 없다. 조선의 종교는 조선인의 고유한 내적정신의 표현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기독교나 어떠한 종교든지 조선인의 현실생활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조선에서 조선에 존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19)

(6) 한치진은 여러 곳에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며 바로 예수의 정신에 기초해 조선인이 교회의 주체가 되며 사회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신도와 교역자가 계급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사회 생활과 교회 생활의 이원론적 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진정한 교인의 교회는 곧 사회다”라고 역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교인들이 추구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9) 한치진, 앞의 책, pp.73-74.

- 가) 우선 교인들이 태도를 변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보존하려고 애쓸 것이 없다. 과거 보전은 있는 자에게는 필요하나, 없는 자에게는 자살이다. 우리에게 변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변하는 것이 모양에서 더 못될 수 없고, 불가불 잘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 나) 교인의 정신해방이다. 교리에서 초월하고, 지위에서 초월하고, 가정과 기타 교파에서 초월하고, 편견에서 초월하여 예수만 믿을 뿐이다. 예수 믿는 데는 감리교나 장로교에 다 속할 수 있고, 다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정으로 예수의 신도들이 모인 곳 혹은 단체이면 그만이다.
- 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자녀인 것을 인정할 것이다. 평신도도 교역자요 무슨 특별한 계급이 따로 없다. 기독교내에는 지도계급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지도자요 기타는 다 종이다.
- 라)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회다. 이 교회 생활을 원만히 하는 것이 곧 원만한 사회생활이다. 진정한 교인이 사는 사회는 곧 교회요, 진정한 교인의 교회는 사회다.
- 마) 예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는 예수교인이라는 명칭을 가지는 것이 불과하고 오직 “무생활교인”이라고 이름 함이 좋겠다. 현대의 다수교인은 직업교인 혹은 체면교인이라 부르면 어떨까?<sup>20)</sup>

## 2. 『증보 윤리학개론』 개념어 및 분석

한국 철학사에서 대부분 최초의 철학 단행본인 ‘최신철학개론’의 저자로 소개되는 한치진의 ‘윤리학’은 사실 신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이 미분화된 상태의 저작으로 기독교윤리학의 수용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sup>21)</sup> 『증보윤리학개론』(한치진 저) 중 제1장 윤리학의 정의와 방법 부분의 개념어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수의 용어들이 윤리학적 논의 및 일상 생활에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20) 한치진, 앞의 책.

21) 강영안,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p.177. 강영안은 한국 최초의 철학입문서를 한치진의 『최신철학개론』(1936)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윤리학과 철학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증보윤리학개론』(1934)이 더 앞서는 철학입문서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와 언어 생활의 변천에 비해 철학, 신학적 개념어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치진에 의한 이런 개념어들의 번역과 보급은 그만큼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강영안은 한치진이 ‘최신철학개론’에서 번역 사용하기 시작한 철학적 용어들의 분석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과 차이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sup>22)</sup> 필자의 ‘증보윤리학개론’ 분석과 종합해 본다면 한치진의 활발한 저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한 새로운 사상의 보급은 한국의 철학, 윤리학,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가 ‘증보 윤리학개론’을 분석하여 정리한 개념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안은 책의 면수를 가리킨다.

## 가

- 가정생활 (목차 3p)
- 가치 (본문 9p)
- 가치적판단 (본문 8p)
- 각성 (목차 2p)
- 개인 (목차 2p, 본문 1p)
- 개인적 사회주의 (목차 2p)
- 개인적 양심 (목차 1p)
- 개인주의 (본문 14p)
- 개조 (본문 16p)
- 거짓말 (본문 7p, 본문 13p)
- 격물치지 (본문 1p)
- 결과 (목차 1p)
- 결정 (본문 7p)

22) 한치진, 앞의 책, p.179.

경험 (본문 7p, 본문 13p)  
경험적 (본문 12p)  
고대회랍윤리 (목차 1p)  
고의적 (본문 5p, 본문 6p)  
공리 (본문 12p)  
과학 (본문 1p, 본문 8p)  
과학적비관주의 (목차 2p)  
관습 (본문 1p, 본문 13p, 본문 16p)  
관찰 (본문 8p)  
국가 (본문 11p)  
권리 (목차 2p)  
규범 (본문 9p)  
규범과학 (본문 9p, 본문 12p)  
규범적과학 (Normative Sciences 본문 8p)  
규준 (본문 2p)  
규칙 (본문 9p)  
‘그런 것’ (본문 2p)  
근로 (본문 17p)  
근본가치 (본문 11p)  
기독교윤리 (목차 1p)  
기술적과학 (Discriptive Sciences 본문 8p)

나

다

대학 (본문 1p)  
덕 (목차 2p)  
도덕 (목차 1p)

도덕감정 (목차 1p)  
도덕률 (목차 1p, 본문 4p)  
도덕생활 (목차 1p)  
도덕적비관주의 (목차 2p)  
도덕적의무 (본문 10p)  
도덕적지식 (본문 15p)  
도덕적판단 (본문 5p)  
도덕철학 (본문 1p)  
도덕판단 (목차 1p)  
돈 (본문 3p)  
동기 (목차 1p, 본문 2p)  
동양윤리학 (목차 1p)  
따윈 (본문 12p)

## 라

## 마

명령 (본문 7p)  
명예 (본문 3p, 본문 4p)  
모리스 (Mores 본문 1p)  
목적 (목차 1p, 본문 2p, 본문 5p)  
목적론 (목차 1p)  
무의식 (본문 7p, 본문 8p)

## 바

법칙 (본문 2p, 본문 15p)  
보편적 (본문 15p)  
봉사 (서문 1p)



분석 (본문 8p)  
불행 (목차 2p)  
비판적 (본문 16p)  
비폭력철학 (목차 2p)

## 사

사고 (본문 6p)  
사랑 (본문 4p)  
사실 (본문 9p)  
사회 (목차 2p)  
사회생활 (목차 3p)  
사회제도 (본문 13p)  
사회적양심 (목차 1p)  
사회적 개인주의 (목차 2p)  
사회주의 (목차 2p)  
사회제도 (본문 14p)  
삼강오륜 (본문 2p)  
생존경쟁 (목차 2p)  
생활 (서문 1p)  
선 (Good 본문 2p)  
선악 (목차 2p, 본문 1p, 본문 8p)  
선악적 (본문 6p, 본문 9p)  
선악판단 (목차 1p, 본문 5p, 본문 17p)  
선천설 (목차 1p)  
성의 (본문 1p)  
성품 (Charactor, Disposition 본문 1p)  
세계윤리학 (목차 1p)  
세계평화론 (목차 3p)

세계폭력 (목차 2p)  
쇼펜하우어 (본문 15p, 본문 16p)  
수기치인 (본문 2p)  
수단 (본문 2p, 본문 4p)  
수신 (본문 1p)  
습관 (본문 7p)  
스펜서 (본문 8p)  
신성관 (목차 2p)  
신의 (神意, 본문 4p)  
실제과학 (본문 9p)  
실제철학 (본문 1p)  
심리작용 (본문 11p)  
심리학 (본문 11p)

## 아

아인슈타인 (본문 12p)  
악 (Evil, 목차 2p, 본문 2p)  
악습관 (본문 7p)  
양심 (목차 1p, 본문 7p, 본문 13p)  
에티스 (Ethics, 본문 1p)  
연역적 (본문 12p)  
영웅론 (목차 3p)  
예지 (본문 5p)  
'옳은 것' (본문 2p)  
'옳다' (본문 2p)  
욕구 (본문 9p)  
욕망 (본문 7p)  
우주관 (목차 3p)

- 원칙 (본문 10p)
- 유교 (본문 1p, 본문 2p)
- 윤리 (서문 1p)
- 윤리도덕 (본문 17p)
- 윤리학 (목차 1p, 본문 1p, 본문 10p, 본문 15p)
- 의무 (목차 2p, 본문 6p, 본문 9p)
- 의무감 (본문 11p)
- 의식 (본문 5p, 본문 8p, 본문 13p)
- 의식적 (본문 5p)
- 의식주 (본문 3p)
- 이기주의 (목차 1p)
- 이상화 (본문 6p)
- 이성주의 (목차 2p)
- 이타주의 (목차 1p)
- 이상 (서문 1p, 본문 7p)
- 인격 (목차 2p)
- 인격자 (본문 15p)
- 인과적관계 (본문 15p)
- 인류애 (본문 3p)
- 인생관 (서문 1p, 목차 3p)
- 일반행동 (본문 3p)
- 일부일처 (본문 14p)

## 자

- 자발적 (본문 5p)
- 자살 (본문 3p)
- 자아 (목차 2p)
- 자아개혁론 (목차 3p)

- 자아실현 (목차 2p)
- 자연법칙 (본문 10p)
- 자유 (목차 3p, 본문 17p)
- 자유의지 (목차 2p)
- 자본주의 (목차 2p)
- 재산분배 (본문 14p)
- 절제 (본문 17p)
- 정 (Right 본문 2p)
- 정당 (본문 2p)
- 정당성 (본문 15p)
- 정당여부 (본문 3p)
- 정신 (본문 7p)
- 정심 (본문 1p)
- 정의 (목차 2p)
- 정치학 (본문 11p)
- 제가 (본문 1p)
- 종교 (목차 3p, 본문 13p)
- 종교철학 (본문 2p)
- 죄악론 (목차 2p)
- 지도력 (목차 2p)
- 지선 (서문 1p, 본문 1p, 본문 11p)
- 지선관 (목차 1p)
- 지선한 목적 (Summum Bonum 본문 3p)
- 지식 (본문 3p)
- 진리 (서문 1p, 본문 10p)

**차**

- 책임 (목차 3p, 본문 5p, 본문 6p, 본문 7p)

천국 (본문 3p)  
철학 (본문 12p)  
초개인적 (목차 2p)  
최고선 (목차 2p)  
최선 (서문 1p)  
최후목적 (본문 3p, 본문 4p, 본문 11p)  
최후성질 (본문 12p)  
최후욕구 (본문 11p)  
치국 (본문 1p)

## 카

쾌락 (서문 1p)

## 타

## 파

판단 (서문 1p, 본문 6p)  
판단형식 (본문 12p)  
평가 (본문 8p)  
평천하 (본문 1p)  
폭력 (목차 2p)  
표준 (서문 1p, 목차 1p, 본문 2p, 본문 9p, 본문 16p)  
풍속 (본문 1p)  
풍습 (본문 16p)  
플레토 (본문 11p)

## 하

향락주의 (목차 1p)

행동 (Action 본문 1p, 본문 2p, 본문 4p, 본문 5p, 본문 13p)

행복 (목차 1p, 본문 11p, 본문 14p)

행복관 (본문 14p)

행위 (Conduct 본문 4p)

혁슬리 (본문 12p)

현대윤리 (목차 1p)

현대종교 (목차 3p)

형식론 (목차 1p)

형이상학 (본문 11p)

후천설 (목차 1p)

희생 (목차 2p)

### 3. 『현대사회문제』해제 및 분석

#### 1) 서지사항

조선문화사편 발행

1949.6.10. 발행, 4×6 143면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윤리이론을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찰스 엘 우드의 책을 단순히 번역해 내려다가 2,3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개작, 증보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고 경과를 밝힌다. “인생 문제는 사회문제 그 자체다”<sup>23)</sup>라고 제1장에 밝히고 있는데, 이 책의 총론은 한치진의 사회 문제 이해와 그 해결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게 하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23) 한치진, 『현대사회문제』, p.1.

## 2) 내용 분석

(1) 한치진은 윤리학에서 사회윤리적 주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치진은 “인생문제는 사회문제 그 자체다”라고 사회윤리적 주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사회문제의 해결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고 하며, 또한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지 아닐 때에 사회문제는 일어난다.”고 하면서 인간사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민주적으로 살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소개한다.<sup>24)</sup> 그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너와 나는 단순한 생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지정의의 자주적 단위들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 한 예로 “같이 사는 문제는 옛날과 달리 오늘에는 인구의 증가, 지식의 확장, 인종문화의 교류, 신기계류의 발명, 국제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기타 문화종교방면의 관념 등으로 인하여 일편 복잡다난하게 되고, 다른 편으로는 사회생활 문제의 해결이 쉽게 된다.”<sup>25)</sup>고 보았다.

(2) 한치진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같이 사는 문제’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한치진은 현대에 있어서 같이 사는 문제의 성격은 아래와 같은 특색을 갖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분업 체제에 있어서 책임과 자주의 중요성, 세계 인류차원의 사고 필요성, 이해타산과 인습적인 악이 극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 개인의 책임은 분업적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그 연대가 심각하게 되었다. 자주의 필요는 여러 배로 증가하였다.

나) 사고의 단위는 세계 인류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계급투쟁과 당쟁은 구물이라고 한다. 세계 인류 단위의 사고 필요성이 있다.

24) 위의 책, p.1.

25) 위의 책, p.2

다) 같이 사는 것은 하필 경제방면이나 기타 일 방면에 한한 것이 아니다. 인심이 경제 방면의 이해타산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유물사관은 후퇴되며 자본주의에서 길러진 인습적인 악은 개조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6)</sup>

(3) 한치진은 사회적 갈등 극복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사회문제란 무엇인가? 한치진은 정치파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좌나 우나 모두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정치종교’라는 특이한 개념을 설파하고 있는데, 종교가 갖는 정치성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정치 혹은 이념이란 것은 마치 종교처럼 강력한 포괄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음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정치까지도 종교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그의 정치종교에 대한 개념과 적용은 매우 독특함을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다. “고대문화는 대개 종교적 형태를 쓰고 발달 되었다. 모든 것이 종교적이었다. 그런데 정치라는 신형종교가 탄생하여 문화를 재판한다. 현대 인간은 정치종교의 재판 하에 있다. 주의와 사상은 정치라는 종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면 존재가 위험하다.”<sup>27)</sup>

(4) 한치진은 사회문제를 크게 네 범주 혹은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 기술한다. 그가 경제(물질)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인정하긴 했으나, 바로 이상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기독교의 물질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민족 간의 경쟁을 예상하면서 민족지도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 교육과 개인적 인격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26) 위의 책, p.3.

27) 위의 책, p.5.



- 가) 경제문제- 물질문제가 중요하고, 표면적으로 지적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나, 물질문제는 그 이상의 문제와 연관된다.
- 나) 민족문제로 민족 간의 대립과 경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족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 다) 문화교육문제를 지적 할 수 있는데, 각국 안에서의 공평한 교육 뿐 아니라, 세계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까지도 중요하다.
- 라) 사실 위의 문제는 대부분 개인적 인격발달의 문제로 귀착된다. “인격은 사회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sup>28)</sup>

(5) 한치진은 앞에서 제시한 이런 사회 문제들의 해결 표준으로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다수 인민이 그때 최가능한 생활표준을 최저로하고 출발할 것이다. 그 밑에 있는 끌어 올리고 그 이상의 부와 지식은 끌어내릴 것이다. ② 사회문제의 감정(鑑定)은 그때 사회의 최고 지식층의 다수가결로 규정할 것이다. 무슨 편당적 음모나 야심이 개재하여 사회의 진행방향을 좌우하게 한다면 이는 한 가지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 ③ 어떤 문제의 제기와 해결이론이 자유의사와 자유발표에 의하였는가를 보아야 한다. 강제나 폭력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하려는 것은 장구한 방책은 될 수 없다. ④ 사회문제의 해결 표준은 공리주의일 수밖에 없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만사해결의 궤도다. 무용한 공론, 편견, 경쟁심은 공리주의 앞에서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sup>29)</sup>

위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민주적 토의 절차 후에 공리주의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리주의적 해결방식은 종종 기독교윤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방식으로 평가되는 경

28) 위의 책, pp.7-8.

29) 위의 책, pp.9-10.

우도 있는데, 한치진의 윤리는 합리주의적 기초 위에 있는 철학적 공리주의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정치, 경제, 복지 영역 등에 적용되는 공리주의적 논변을 담고 있고, 정치가 만이 아니라 사회 실제 경험자들과 학자들이 제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사회상을 고려할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진전된 사회윤리적 판단 기준을 주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신학세계’ 에 나타난 기독교윤리 이해와 인물지 논의

#### 1. ‘신학세계’에 나타난 기독교윤리 이해

이화여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신학세계’의 집필 활동을 통해 한치진은 다양한 기독교윤리적 논의들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17,18합호에서는 기독교윤리학 개론적 성격의 서술을 발견하게 된다. 논문의 중요 부분을 인용, 언급하면서 그 의미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 1) 기독교윤리학의 정의

기독교윤리학은 제2세기의 유명한 감독 이나시어스의 말과 같이 ‘기독교의 진리대로 살자’하는 것이 그 정의이다.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까하는 것이 기독교윤리학의 근본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인생의 전반사항을 조사하고 응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고로 기독교윤리학은 덕성에 대한 훈련인 것 뿐 아니라 현 세계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간사회의 만반 사정을 연구하려는 인간사회과학이다.<sup>30)</sup>

30) 한치진, “신학연구: 기독교윤리”, 『신학세계』(신학세계사 발행, 1932년 제 17권, 18권 합호), p.56-85. 한자 및 당시의 맞춤법 표기를 부분적으로 현대어로 바꾸었음.

기독교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계시에 기대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면은 한치진이 ‘인간사회과학’이란 당대에 흔하게 사용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것을 통해 엿볼 수 있다.

## 2) 기독교윤리학과 철학의 관계

(1) 기독교윤리학과 본체론: 모든 윤리학은 본체론 즉 형이상학과 관계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나하면 윤리학은 안존(well-being)을 연구하는 과학이요 안존은 형이상학의 논건인 존재(being)를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비컨대 윤리학은 형용사를 그 논건으로 하고 본체론은 명사를 그 논건으로 한다.<sup>31)</sup>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는 문제가 행복과 관련된 문제이다. 행복을 논할 때 윤리학에서는 well-being에 대한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이미 이 중요한 문제를 한치진은 윤리학의 특징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철학적 논의인 ‘형이상학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형이상학적 논의를 떠나 단순히 윤리학적 학설로 대립한다면 그 윤리학은 바탕이 없는 이론이 될 뿐 아니라 철학적 의혹에 빠져 혼돈(混沌)되기 쉬운 것으로 보고 있다.

(2) 기독교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 상설과 같이 기독교윤리학은 세계기독교적 도덕의식을 연구사항으로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과학적 성질을 부인하지 아니하려면 인생의 자연적 도덕생활을 그 연구문제 중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고로 기독교윤리학은 일반철학의 연구결과를 무시하거나 그것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나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창조되고 발전된 도덕세계는 그리스도가 발생하기 전과 그 외의 도덕세계의 성과요 표

31) 위의 글, p.56.

준이 되기 때문이다. 영적과 자연적과의 관계는 마치 태양 밑에서 성숙하는 곡식과 땅에 떨어져 썩는 종자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성경의 말과 같이 ‘신령한 자는 먼저가 아니요 도리어 혈기 있는 자가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인 것이다(고전 15:46)... 완전한 기독교적 인격은 그리스도 정신의 내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도덕화한 인성이다. 기독교는 모든 자연적 선을 천국사회에서 보전하고 보존완성하려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렇고로 기독교윤리학이란 과학은 모든 진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도덕적 인생관은 인류의 가능한 일체지식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32)

한치진은 기독교윤리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수용하고 있다. 사실 기독교윤리를 포함한 신학의 학문성 혹은 과학성에 관해 지금까지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이 한국 신학계와 교회의 현실임을 고려할 때, 신학 및 기독교윤리학의 과학성을 제시하며 철학과 신학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대목은 포스트모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일반학문 영역 중 심리학과 경제학과의 관련성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그의 철학적 윤리학과 기독교윤리학의 관련성 이해는 다음 언급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도덕적 권위는 인생의 신령성을 떠나서는 없다. 이리하여 기독교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은 각각 독립하여 연구할 수 있는 것이나 필연적으로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과 신앙이 반대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성의 윤리학은 신앙의 윤리학에서 대성(大盛)하려한다.”<sup>33)</sup>

## 2. 한치진의 서지 정보와 인물지 재논의 필요성

지금까지 한치진의 문헌 일부에 대한 해제와 개념어 분석 등을 통해

32) 위의 글, p.59.

33) 위의 글, p.60.

그의 사상과 철학적, 신학적 윤리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특히 그의 ‘증보윤리학개론’은 한국인에 의해 최초로 저술된 서양철학서로 인정받고 있는 그의 ‘최신철학개론’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후속 논의와 검증을 통해 ‘최신철학개론’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철학 단행본으로도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치진의 인물지 관련 정보도 재확인 및 후속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중의일보에 의하면 “신진 청년박사 한치진씨 귀국”이라는 제목으로 1928년 7월10일 밤 그가 경성역에 도착했으며 금후는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갈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sup>34)</sup> 아울러 그가 남가주대학 철학과에서 4년간 수학했으며 동 박사원에서 1년간 “동양윤리철학”을 전공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1921년 8월 18일자 미국에서 발행된 신한민보에 의하면 “8월 12일 중군남경대학에서 수학하던 한치진씨가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즉 그는 만 7년간의 미국 생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동호교수의 “한치진 문헌연구지 3” 논문 중 그의 ‘인물지’ 부분과 일부 문헌에서는<sup>35)</sup> 한치진박사가 1930년 9월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1928년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향후 그가 숭실전문학교 교수직을 원했거나 거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그는 1931년부터 감리교 협성신학교, 1932년부터는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서 『기독교인생관』(종교철학대계하권)<sup>36)</sup> 서언에 보면 한치진의 학계, 종교

34) 중의일보 1928년 7월 10일자 보도(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자료 참조)

35) 이광래, 『한국의 서양사상수용사』, p.267에서는 그의 귀국연대를 1931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한치진의 생애와 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이진구, “한국 근대 개신교 지식인의 종교인식” (서울대학교종교문화연구소 편, 『종교와 문화』, pp.271-292)중 동 항목을 참고할 수 있겠다.

계에서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있다. 즉 그가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좁은 의미의 신학전공자 혹은 목사가 아니었기에 폭넓은 신학적 이해와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학적으로 고립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편협한 목사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 몇 군데 보인다. “그러나 조선에 와서 신학교에 있었을 때에 나의 생각은 종교적이지요 극기적이지요, 고행적이었다. 또한 종교 방면으로 힘써 연구를 하게 되었다 미국에 있을 때 잘 보지 않던 기독교성경을 처음부터 내려보고 주석까지 하였다...” “그때의 어떤 조선 교역자들은 왜 필자를 그렇게 오해하고 반대하였는지를 나는 모른다. 나는 얼마 전에 종교사상 방면에 다소 지식이 있다는 사람에게 본서의 서언하나 써주기를 청하였었다. 그의 말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책의 전 내용을 검사하기 전에는 서언을 쓸 수 없다 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일절 서언에 대한 청언을 단념하기로 하였다.”<sup>37)</sup>

위와 같이 책의 서문에서 밝혔듯 한치진은 교계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이를 계기로 1945년 해방과 함께 군정 치하에서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의 고문으로 방송 강의를 담당하고, 1947년 7월에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는 등 공직에서 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IV. 결론(한치진 연구의 의의 및 성과)

삼십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작을 남긴 한치진의 윤리사상 전체를 조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 논문에서 다 이를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논문은 저술 성과에 비해 많이 논의되지 못했던 한치진의 행적과 학문

36) 『기독교인생관』, 이화여자전문학교 내 철학연구사 발행, 1924.6.10 발행, 4×6 207면.

37) 위의 책, p.3.

적 업적을 돌이켜 보면서, 그의 철학과 윤리적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른 학문 분야가 그러하듯 기독교윤리학의 연구사는 해방 후부터 혹은 서구의 대표적인 학자에서부터 학자들의 관심에 따라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윤리학사를 논한 책들이 대부분 수용사 부분의 언급은 없이 특정 학자에서부터 기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신학의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윤리학'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윤리학은 신학, 철학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한국의 역사 및 기독교 전반적인 사건들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런 문맥 의식 속에 '기독교윤리학'의 수용 및 정립을 돌아보는 과정으로써 한치진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추적 과정을 밟아 보았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러하듯 그 윤리의 유입 역사도 세 가지 통로에서 그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즉 중국을 통해 유입된 서적,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적 그리고 미국 유학파들에 의해 전수된 지식 등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을 중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구한말의 어수선한 상황과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다는 것은 기독교윤리사의 정립에 있어서 깊게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한말 서방선교사들의 기독교 전래와 이들을 도와 기독교를 수용한 한국인 조사 그리고 서방에서 유학한 기독교지식인들에 의해 기독교의 윤리적, 사회적 고민 등이 이미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윤리의 수용사를 연구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왜곡된 역사 이해나 소위 민중편향적 역사 인식과 신학적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한치진은 신학을 전공했거나 안수를 받은 목사는 아니었지만, 기독교 지성인의 입장에서 사회학, 심리학, 철학(종교철학)등을 기독교대학에서 가르쳤으며, 신학문의

유입·전개에 있어서 기독교신학적 입장과 해석을 견지했던 학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기독교윤리학’에서 간과할 수 없는 시각들을 던져주고 있는 학자임이 드러났으며, 그의 전반적인 사상과 서적·논문의 재소개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각도의 해석 작업이 활발히 전개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필자는 방대한 저작 규모에 비해 내용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던 그의 사상을 윤리학 관련 주요 문헌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를 통찰력 있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연구를 통해 한치진의 미국 남가주대학교 전공은 동양윤리사상 임이 밝혀졌으며, 그의 현실 사회 인식에 기초한 자주적인 서방인식을 여러 저술들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즉 한치진은 한국 기독교의 초기 교인들이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단순히 문헌에만 의존해 다른 문화를 접한 것이 아니라, 인적 교류와 해외 체험 등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답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한치진의 윤리관련 문헌〉

1. 『價值的 判斷의 意義』, 『신생』 2권 10호, 1929.
2. 『基督教 倫理』, 『신학세계』 17권 12호, 1932.
3. 『基督教의 道德觀』, 『신학세계』 17권 6호, 1932.
4. 『동적생활주의로 본 도덕문제』, 『조선지광』 제65호, 1927.
5. 『良心의 起源과 誤錯問題』, 『청년』 12권 8호, 1932.
6. 『自由와 責任問題』, 『청년』 10권 5호, 1930.
7. 『(정정)윤리학개론』, 조선문화연구사, 1948.
8. 『(增補)윤리학개론』, 철학연구사, 1934.
9. 『기독교인생관』, 철학연구소, 1934.
10. 『東西文化哲學』, 조선문화연구사, 1949.
11. 『宗教哲學概論』, 철학연구사, 1934.
12. 『宗教哲學』, 조선문화연구사, 1949.
13. 『현대사회문제』, 조선문화연구사, 1949.

### 〈한치진의 철학 사상에 관한 연구〉

1. 정 중, 『한국 철학자의 철학연구의 동기에 대한 고찰』, 『백성옥박사송수기념 불교학 논문집』, 1959.
2. 정 중, 『한국철학계에 있어서의 미국철학의 수용과 영향』, 『아세아연구』 제10집, 1967.
3. 조희영, 『現代韓國의 前期 哲學思想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4. 최재석, 『1930년대의 사회학 진흥운동』, 『민족문화연구』 제12호, 1977.
5. 河東鎬, 『韓稚振研究 文獻志(I)』, 『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제12집, 공주사범대학교, 1975.
6. 하동호, 『韓稚振研究 文獻志(2)』, 『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제18-1집, 공주사범대학교, 1980.
7. 하동호, 『韓稚振研究文獻志』, 『古書研究』 7, 韓國古書研究會 11, 1990.

논문투고일: 2012.10.31

심사개시일: 2012.11.27

게재확정일: 2012.12.19

---

• 국 문 초 록 •

---

구한말의 어수선한 상황과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다는 것은 기독교윤리사의 정립에 있어서 깊게 재고해야할 부분이다. 기독교윤리의 수용사를 연구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왜곡된 역사 이해나 소위 민중편향적 역사 인식과 신학적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한치진은 신학을 전공했거나 안수를 받은 목사는 아니었지만, 기독교 지성인의 입장에서 사회학, 심리학, 철학(종교철학)등을 신학교와 기독교대학에서 가르쳤으며, 신학문의 유입·전개에 있어서 기독교신학적 입장과 해석을 견지했던 학자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방대한 저작 규모에 비해 내용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던 그의 사상을 윤리 관련 주요 문헌을 분석하는 가운데 통찰력 있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그의 현실 사회인식에 기초한 자주적인 서방인식을 여러 저술들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즉 그는 한국 기독교의 초기 교인들이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단순히 문헌에만 의존해 다른 문화를 접한 것이 아니라, 인적 교류와 해외 체험 등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답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고 있다.

**주제어:** 한치진, 기독교윤리, 사회사상, 민족, 일제강점기, 증보윤리학개론

---